



○관문사는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9월 6일 관문사에서 열린 트러스트 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알뜰장터의 개막식 모습.



천태종 서울본원인 관문사(주지 춘광)가 각종 문화행사와 대중법회 서비스, 지역사회 현안 참여 등을 통해 신도와 일반인들의 문화도량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관문사는 창건 5주년을 맞아 천태종의 서울지역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도량,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7일 정기법회부터 시작된 무료진료와 수화통역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미술·공연관 건립을 추진하기

천태종 서울본원 관문사 창건5주년

문화도량으로 자리잡는다

무료진료·수화통역으로 포교계층 다양화 알뜰장터 수익금 '우면산 트러스트' 출연 불화특별전 등 문화행사도 정례화 추진

로 했다. 수화통역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수화통역 서비스는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이 대한 포교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태의료봉사단이 주관해 노인층 신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상담, 진료, 처방, 투약 등 의뢰서비스도 다양한 계층포교의 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 포교중심도량으로 자리잡기

위한 관문사의 전략에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문사는 관문사가 위치해 있는 우면산을 무분별한 개발 위협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9월 6~7일 열린 알뜰장터에서 얻은 수익금 1천여만원도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기금으로 기탁했다. 한편 관문사는 창건 5주년 기념일



태고종 제주교구 종사법계품수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원장 도성)은 9월 1일 북제주 금방사에서 종사법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품수한 스님은 지난해 6월 열린 제8차 법계고사에서 종사로 추대된 제주교구 소속의 관운·각막·매계·수암·상허·춘곡·도산·선용 스님 등 8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해 제주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스리랑카 교류 30주년 기념법회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은 스리랑카 불교계와의 교류 30주년을 맞아 9월 14일 총본산 와우정사에서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말 가말게 스리랑카 외교부 부장관, 비제야시리 주한 스리랑카대사 등 외교사절 10여명과 열반종 해곡 총무원장 등 열반종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어 열린 1시간여의 환담에서 한-스리랑카간 불교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덕대, 복지·정보시스템 확충

학생편의시설 개선·웹환경 보강

위덕대가 재학생들의 복지 서비스 확대와 정보시스템·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나섰다.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복지, 정보, 시설 등 분야별 개선조치를 단행한 것. 위덕대는 일본·태국·캄보디아 등 해외문화 탐방을 3차례 실시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4개월 과정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 제를 운용했다. 또 학생서비스센터 운영, 학생서비스센터 편의시설 확충

등 학생복지 서비스도 꾸준히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했다. 정보와 시설 분야에서의 개선도 두드러진다. 지난 8월에는 웹환경 전자자료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도서전산시스템 서버 증설, 신착도서 코너 개설, 장서 2천5백여권 확충, 인터넷디스크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했다. 9월말에는 디스크시스템과 연계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터를 오픈,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각각 300MB와 500MB씩

인터넷상의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과 열람,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덕대는 하계 방학기간중 바이러스와 해킹을 예방을 위한 교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장비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10월중 자연과학관 준공, 9월말 운동장 서치라이트 설치 등 시설 확충 공사에 진행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재무부장 도제스님

종정사서실장 문덕스님

천태종은 9월 10일 총무원 재무부장에 종정사서실장 도제스님(왼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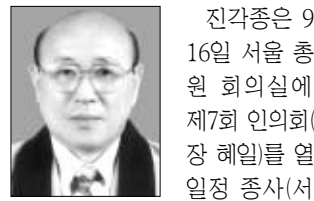
임명했다. 종정사서실장에는 재무부장 문덕스님(오른쪽)을 임명했다.

새 재무부장 도제스님은 1984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총무원 사회부장, 서울 관문사 주지, 종정사서실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85년~96년과 98년~2002년 재무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덕스님은 총무원 교무국장, 종정사서실장,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대구 대성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일정종사 대중사에 품수

진각종 인의회서 결의



진각종은 9월 16일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7회 인의회의장 해임을 열고 일정종사(서울 능인심인당 주교·사진)를 대중사에 품수하기로 결의했다. 또 혜정 대정사(교육원장)와 휴명 대정사(사감원장)는 종사 행계법계에 품수하기로 했다.

행계 품수식은 10월 21일 서울 총무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게시판

행사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10~12시 복지관 상담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 주택, 이혼, 형사고소고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전문법률상담가에 의해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은 내방 및 전화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02)385-1351

▲타사방은 9월 28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탈춤공연을 관람하는 순례를 한다. 병산서원도 방문하는 이번 답사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오전 7시, 양재역 오전 7시30

분별 각각 출발한다. (02)725-1284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10월 1~2일 강원도 양양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조계종자원봉사단 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강을 비롯해 삼보일배 정진, 캠프파이어 등의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02)723-5101

모집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전통 사찰음식을 배우는 '푸른요리'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30일 매

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02)571-2988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지체 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 '맑은 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치료와 그룹활동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 (051)264-9033

구인

▲예산 수덕사는 종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

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남자는 전문대졸 이상이며 여자는 고졸이상,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모집인원은 남·여 각 1명이며 마감은 채용시까지. (041)337-6666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 직종 및 인원은 독거노인 식생활개선 도우미 3명, 독거노인 안심지원 도우미 5명, 경로당 점심지원 도우미 5명, 입욕치료 도우미 2명. 계약기간은 계약일부부터 6개월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면허증 사본 각 1부. 마감

은 채용시까지. (02)929-7950

부고

▲불교신문 편집국 김선두 부장의 부친 김낙중 용이 19일 별세했다. 견대중주병원 영안실 1호, 발인 21일, 장지는 충주 동양면 선영. (043)840-8491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기에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대총대중사 10돌 열반대제

천태종은 제2대 종정을 지낸 대총대중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8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반대제를 봉행한다. 대총대중사는 구인사를 비롯해 70여 사찰을 증정했으며, 74년부터 93년까지 종정을 지냈다. 스님은 평소 "불법을 닦는데 있어서 실천 수행이 주된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경전을 보고 불도의 길을 알게 되었으니, 실제로 자기 노력으로 수행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다.

대교구구 남성합창단 창단

진각종 대교구구청은 8월 31일 남성합창단을 창단했다. 여성합

창단인 금강합창단의 정기발표회를 앞두고 창단된 남성합창단은 혼성합창을 할 수 있도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남성합창단은 9월 21일 대구 진각문화관에서 첫 연습모임을 열고, 매주 한차례씩 연습하기로 했다.

창종 36주년 기념법회

일승총(총무원장 혜정)은 창종 36주년 및 본산 이전 7주년을 맞아 9월 17일 구리 총무원에서 기념법회 및 중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혜정스님을 비롯해 중앙총회의장 혜인스님, 교육원장 정감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삼봉사 대법당에서 중도 수계법회가 열렸다.

全國禪院首座會 聲明書

오늘 우리는 전국제방(全國諸方)의 선원(禪院)에서 참선정진(參禪精進)하고 있는 이천(二千)의 수좌(首座)들의 뜻을 묶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 훼손하는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선원의 수좌들은 평소 산(山) 속에 머물러 살고 있으며, 산(山)을 의지하여 수행정진하고 있으니 산은 바로 우리의 도량(道場)이요 부처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든 사찰과 선원에서는 산감(山監) 직책을 두어 벌목이나 산불로부터 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찰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울창하고 수려한 산림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불교인의 자긍이요 보람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소중한 자연생태가 보존되어있는 곳이며,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100여 곳이 넘고 한수이북(漢水以北)의 대표적인 선원(禪院)이 있는 망월사, 회룡사가 있어 우리 수좌들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국립공원을 8차선 고속도로로 관통하는 노선의 변경문제를 이 달 9월 중에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 수좌들은 위로는 종정예하의 각별한 뜻과 원로회회의 유시를 받들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기를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이제 북한산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반대는 비단 불교계의 입장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의 대다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의 반대결의안도 채택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문가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도 4:6으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난 년말 관동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던가?

우리 선원의 수좌들은 최근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반대와 관련한 불교계의 순수한 뜻과 결연한 의지를 예곡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련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북한산을 수호하는 사부대중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이천만 불자들도 '산을 지키는 일에 호법신장(護法神將)이 되라'는 원로회의 노스님들의 유시(諭示)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스님께서도 북한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원로회의, 중앙총회, 교구부사주지회의의 결의와 전 종도들의 열화와 같은 연원을 수렴하여 북한산 수호문제를 종단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서 대정부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정부당국은 훗날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일이 되지 않게 명분과 전문적 검토결과와 다수 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불기 2547(2003)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